



장식은 사절, 책을 사랑한다면 마주 보세요

문화관광부 직원이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표어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공모관실에서 여론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효민 씨. 그는 '2003년 독서의 달 표어 공모'에 '책 꽃이두면 종이 읽으면 지혜'를 응모해 이론 없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단 열두 글자로 독서캠페인의 의미를 부각하는 한편, 책을 꽃이두기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비판하는 예리함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책읽기를 즐기는 독자로서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책은 삶의 양식'이라는 이상적인 경구보다 독서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었지요. 사실 제 책장에도 그저 꽃이 두 책이 꽤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표어가 선정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제 문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명감도 드네요.”

한효민 씨가 '2003년 독서의 달 표어 공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7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된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다. 메일은 독서의 달 표어 공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평소 책을 가까이 하는 한효민 씨는 웬지 좋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속한 기관의 행사라 덜컥 선정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마음이 쓰이기도 했지만, '기관행사에 직원인 자신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응모를 결정했다.

“몇 어절 되지 않는 표어 만들기가 뭐 대수이겠냐 생각했는데 웬걸, 어느 날은 몇 시간이나 끙끙대며 붙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완성하고 나면 대개가 어디서 본 듯한 문장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요. 몇 가지 다른 표어와 함께 응모했는데, 머리를 굴려 나온 표어보다 실제 체험이 살아 있는 표어가 공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효민 씨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는 이다. 한효민 씨의

서재에 가지런하고도 빼곡히 꽂힌 책은 무려 500여 권. 한 달에 두 권 이상의 책은 꼭 읽는다는 한효민 씨는 책을 사는 데 지출하는 돈이 제일 아깝지 않다고 한다. 요즘은 작가 이문열의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저자의 독특한 해석이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소개한다. 한효민 씨의 표어를 잠시 빌려 말하자면, 《삼국지》역시 서재에 꽂혀 오랫동안 '종이'로만 기능하던 책이었다고. 그리고 보면 이번 표어 창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삼국지》는 아닐까? 한효민 씨는 이어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은 작품으로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꼽는다.

“표어에서도 언급했지만 책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물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직접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책을 사랑한다면 책장에 꽃이두지만 말고 책을 펼쳐 마주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마주하라는 한효민 씨의 말은 '책 전시의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뼈있는 권고이다. 한효민 씨는 자신의 표어가 책과 지식을 사랑한다는 변명 아래 책의 옆구리만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효민 씨로 인해 이 가을 세상의 많은 책장들이 소란스럽겠다. **한효민**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